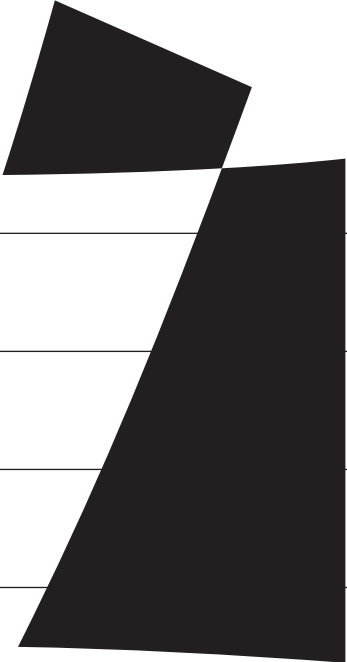


(2017.6.27—6.29)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批評年
第一日
第二日
第三日

(2017.6.27—6.29)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비평삼일(三日)

인천아트플랫폼이 2017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에 대한 비평문과 인터뷰 등을 담은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2017 Platform Critique Weekly)’를 11월 2일(목)부터 12월 14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웹진을 통해 발간합니다. ‘비평삼일(三日)’은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의 사전 미리보기로 지난 6월 27일 부터 29일까지 삼일간 진행한 워크숍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비평삼일(三日)’은 입주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참여 비평가들의 단상(斷想) 비평을 들어보는 자리로 총 13명의 입주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시각,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연구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6개국 28팀 4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Platform Critique Weekly)’는 이들의 작품을 해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위클리에는 예술가의 창작 발전과 예술적 지평의 확장을 위해 진행한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비평문과 작가 인터뷰, 대표작품 이미지, 작가 프로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예술가, 연구자의 비평과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합니다.

(2017.6.27)

(1)

김순인
장서영
정석희
정혜전
공상훈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批評一日

비평상인

김순임—구나연(미술비평가)

김순임

작년 인천아트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를 보고 쓴 글을 상기해보면 김순임 작가는 ‘자연주의자’라는 생각을 했다. 자연과 인간의 삶을 다루며 자연소재를 그대로 미술관에 가져오거나 사라질 것이지만 본인, 돌맹이, 각자의 기억이 작가와 맺게 되는 관계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전에 해 오던 인물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와 돌맹이의 단단한 소재를 혼합하는 작업에서 작가는 자연과 작가 사이에서 껄매기를 해왔다. 사실, 자연은 껄매 필요가 없다. 굳이 껄매지 않아도 만나는 자연의 특성에 껄매기를 하는 작가의 작업은 인간 혹은 작가 자신과 껄매기라는 생각이 든다. (중략)

김순임이 장소와 마주하는 방식은 우선 외부 환경과 우연히 만나 하나의 특별한 장소를 지어내는 것이다. 이는 문득 마주친 공간으로 직접 들어가 그곳을 몸소 호흡하고, 그 장소의 자연물이 가진 시간과 기억을 가늠하며 그것을 조금씩 호출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땅, 돌, 풀, 모래와 같은 무명의 자연 대상들의 침묵과 작가의 신체나 행위가 생생히 증거하는 삶의 짓기가 밀착하는 공존의 상태이다.



장서영—최희승(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영원히 반복해서 익사하는 꿈 이야기’ 작품을 흥미롭게 보았다. 계속해서 죽는 꿈이 왜 기억에 남았을까? 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장서영의 작품에서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듯하다. 구도, 단순화한 배경, 주체가 익명화되거나 구속된 상황, 그 상황이 실제인지 작가가 꾸며낸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 작가가 만들어낸 이러한 방식들이 작품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다. 또한, 작가는 ‘반복’을 사용한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반복을 통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만드는 것은 ‘영원히 반복해서 익사하는 꿈 이야기’ 외 다른 작품에서도 이러한 반복적 기법은 집중력과 흡입력을 높인다. 작가가 사용하는 ‘반복’이라는 방식은 작가가 말하려는 것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여러 번 사용하여 메시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데 장서영 작가의 작품은 이 두 가지 의도가 모두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는 계속해서 ‘존재’라는 것에 대해 탐구한다. 이것을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복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 같다.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존재’에 대해서도 존재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 계속해서 반복했음에도 결국 찾을 수 없는 ‘공허함’ 이 두 가지를 오가고 있다.



정석희—고동연(미술비평가)

정
작
의

정석희 영상회화의 시작이나 끝부분에는 한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고뇌를 암시하는 문장들이 등장한다. 굉장히 구조적이고, 현상학적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열심히 손을 쓰는 사람’ ‘Man’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여기 오래 있었다.’ 마치 신이 하는 이야기 같은 전지적 시점의 느낌이다. 이것은 남성의 목소리, 개별적인 것과 위에서 들리는 목소리, 굉장히 공대해 보이고 구조적이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반복한다. 위에서 보는 시점과 실존적인 환경을 감지하고 형상학적인 신체를 추상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가 콘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원론적인 목소리의 ‘나’는 개인적인 자아이지만 척박한 현실에 맞서는 대표성을 지닌 인간상으로 읽힌다.



정혜정—정현(인하대학교 교수, 미술비평가)

작가의 이전 작업은 수평, 수직적인 형태로 어딘가를 가는, '움직임'으로 이뤄진 작업이었다. 작가는 한강에 배를 만들어 띄우고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내부가 아닌 외부를 향해 떠돌고 이를 실천하며 본인의 방식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이는 본인만 또는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다. <World List> 작품을 통해 작가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에게 늘 '바깥'이어야만 했던 보편적인 질서가 있는데 작가는 새로운 통로, 구멍을 만들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알고 있던 작업실을 자신의 방식대로 조형물, 기성품, 기억이 있는 것, 없는 것을 혼재하여 불일치하게 했다. 정혜정 작가는 감각을 지우고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의 속도와 반대로 가는 작가이다.



정혜정

비평상인

비평일일(一日)
6월 27일(화요일)



(1)

안상훈—정현(인하대학교 교수, 미술비평가)

작업이 가진 색채, 방식, 작가가 캔버스를 대하는 태도, 색을 정하는 논리 등은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시인의 영역과 같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회화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의 요즘 회화는 프로세스를 논리적으로 정의해야 하고 말이 많은 회화인데 안상훈 작가의 회화는 다른 부분이 있다. 모더니즘 회화와는 다르다. 그때의 회화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없는 처음의 기억을 담고, 기억을 형상화한다. 안상훈 작가의 작품은 시인의 즐거움, 화가의 즐거움을 준다. 마치 그림을 모르는 그 상태를 그 상태 그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 있다. 소년의 감성, 그 무언가를 꺼내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한국미술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미술은 너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느낌인데, 안상훈 작가는 그림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리려는 느낌이 있다. 작가 본인이 말하는 그림이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유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2017.6.28)

(2)

만스컴피니명

박승준

심승우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批評二日

댄스컴퍼니명—심정민(무용비평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공간, 빛 등과 같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인데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익숙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곤 한다. 작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등의 관계성을 탐구한다. 사물(소품)을 활용하여 공간감으로 증폭시킨다던가, 소품과 무용수가 같은 시공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실험하는 작가이다. 작품 스타일이 상당히 과정 중심적인데, 작품 안에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어 있기에 피상적인 작품 자체로 보기보단 작품 안에 과정, 흐름을 탐구적으로 보고 있으면 본질적으로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작업방식이 진지하고 본질에 가까이 접근하는 최근 젊은 창작자에게서 보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댄스컴퍼니명



비평상인

비평이일(二日)
6월 28일(수요일)

박승준

나는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서양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학습된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뭇잎이 떨어는 소리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작게 보면 리드미컬하지 않지만 큰 스펙트럼으로 보면 나뭇잎의 떨림에서 리듬이 존재함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이 없어졌을 때 음악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진다. 규칙을 배제해놓고 순수한 음들만을 가지고 어떠한 조립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승준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심승욱—홍경한(2018 강원국제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미술평론가)

만
안
부
고

“예술 작품은 세상의 일부고, 세상의 일부에서 언어화 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철학자의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심승욱 작가에게 처음 관심이 갔던 것은 작업의 개념이었다. 2011~2015년, 작가 심승욱은 〈구축과 해체(Construction-Deconstruction)〉 시리즈를 통해 인간 욕망의 모순을 그렸다. 과잉으로 점칠 된 시대에서의 풍요와 결핍의 경계를 담아냈으며, 블록을 쌓고 허물고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모순, 넘침과 끝없는 부족을 시각화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오브제들을 모아 비정형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작가에게 인간의 욕망은 단순히 해체와 구성으로 이분화 되진 않는 것이었다. 시작과 끝은 의미가 없으며 과정이 곧 결과에 가깝고, 결과는 다시 과정에 엮였다. 그렇기에 그의 작업은 동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
평
상
인

(2017.6.29)

(3)

고등어

범진용

서영주

안경수

정아롱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비평상인

批評年目

고등어—황정인(사루비아다방 큐레이터)

고등어

2000년대 후반에 봤을 때는 자기 안의 내면적인, 심리적인 것을 풀어내는 작업을 했던 거로 기억한다. 저 사람만의 어두운 뭔가가 있겠구나 싶었다. 색감이나 분위기로 작가의 감정선을 읽어낼 수 있었다. 최근에 하는 연필드로잉을 보니 오히려 색을 빼니까 말하려던 게 더 보이는 느낌이다. 몸부림처럼 그 회화자체가 종이, 연필로 맞닿으면서 감감들이 살아난다는 느낌이 든다. 작가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남녀를 직접 들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각을 나만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고등어 작가만의 차별성이라 생각한다. 고등어 작가의 작업에서 흥미롭게 본 부분은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타인에 의해 신체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감각을 타인들의 마찰에서 찾은 점이다.



범진용—황정인(사루비아다방 큐레이터)

범진용

심리적인 꿈을 현실과 결합하는 형태에서 사실적인 풍경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전 하였음에도 그 이후 작업에서 또한 다른
풀을 보고도 요동치고 있는 풀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림을 그리며
유독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적인 풍경 안에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관심이나 영감을 얻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회화적인
면에서도 본인이 작업에 도취하여 그리는 것이 느껴진다.
즉각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붓질에 심취해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느끼는 풍경은 우리는 작은 존재인데 그 풍경은
매우 크다. 근데 그 자체를 커다랗게 옮겨왔다.



비평삼일(三日)
6월 29일(목요일)



서영주—황혜림(영화 프로듀서)

〈본공연: 여기에서〉, 인형이 나오고, 몸짓이 나오는 작가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매력적인 에너지, 움직임이 넘치는데 “서영주의 작업은 ‘무엇, 무엇’이다.”라고 정의내리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다. 요즘 다원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서영주작가의 작업은 다양한 형식, 조합을 한 다원의 작업이라 생각된다. 〈P플레이〉에서 종이인형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공연 과정에서 이것이 잘 드러난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가들 중에서도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으로 현실세계를 풍자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인형의 움직임, 〈풍요송〉 등이 어찌보면 서영주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화자로서의 인형이 아닐까 생각한다. 거꾸로 매달린 인형의 이미지, 다시 날아오르기 전의 추락, 페이퍼맨의 추락, 독백 등에서 ‘추락’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한다. 작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키워드를 구체화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듯하다. 작가는 창작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벽 앞에서고 인형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다시 벽을 깨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행동 한다. 인형이라는 매개, 연극, 춤을 통해서 그 양식이 무엇이 되었든 행동, 움직임, 액팅이 서영주 작가가 살아가는 과정이다.

서영주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비평삼일

안경수—김미정(아트스페이스폴 큐레이터)

작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풍경을 담아왔고 이 풍경 안에는 여러 의미와 내용이 있었다. 먼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나무 등의 일상적 풍경이 작가에게는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사물인것 같다. 작품에서 화면의 질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표현하는 사물, 질감에서 작가가 말한 공간이 잘 나타난 것 같다. 두 번째는 사진, 영상, 실제 공간에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다. 작가가 회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서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텍스트에서 풍경과 풍경화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삼차원으로 그려낸다는 말을 보았다. 작가의 이러한 디스플레이에는 충분한 의도가 있겠지만, 회화 그 자체만으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진 또는 영상이란 매체로 변형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풍경 안에서 이미 작가가 선택한 풍경이기에 ‘그 자체’로의 디스플레이 방식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화면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막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듯하다.

안경수



비평삼일(三日)
6월 29일(목요일)



정아롱-김노암(아트스페이스휴 디렉터)

정아롱 작가의 작품은 다른 작가와 공통된 부분도 있고 자기만의 독특한 부분도 있다. 2013년 작품에서는 건조한 사막의 멕시코 느낌이 나기도해서 프리다 칼로가 떠오르기도 했다. 예술가의 상당수가 여성이다. 상당수의 여성작가들이 한국사회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작업의 소재로 다룬다. 이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은유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정아롱 작가의 초기 작업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초기 작업은 배경이 비어있고, 이후 중반에 접어들면서 숲에 자화상이 있다. 작업의 큰 변화선은 숲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중남미 쪽 문학이나 회화에 '마술적 리얼리즘' '환성적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아롱의 작품에서 그런 느낌이 난다. 정아롱의 회화는 몽환적, 현실적, 불가능한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데 우리에게 묘한 설득력과 공감을 호소하는 지점이 있다.

정아롱



비평삼일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콘서트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oncert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T. 032.760.1000

F. 032.760.1010

Incheon Art Platform

3, Jemullyang-ro 218beon-gil, Jung-gu,
Inchoen 22314, South Korea

T. +82.32.760.1000

F. +82.32.760.1010

본 웹진에 수록된 글과 도판, 이미지의 저작권은
해당 비평가, 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and the
Incheon Art Platform.

H. www.inartplatform.kr
F. www.facebook.com/Inartplatform
I. www.instagram.com/Incheonartplatform

批評年日
批評年日
批評年日